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ACT NEWS

1차 풀러 신학생 창조과학 집중세미나

지난 1월 30-31일 1차 풀러 신학생 창조과학 집중 세미나가 파사데나 장로교회(담임목사 성현경)에서 열렸습니다. 그 동안 유학생 탐사여행과 신학생 탐사여행을 통해 신학생들이 창조과학을 접해왔는데 그 연장선에서 열렸습니다. 총 80여명의 신학생 부부가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이 시대에 창조과학이 성경 변증과 다음 세대를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도구임을 공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은 이 세미나가 더욱 자주 열리기를 희망했습니다.

첫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신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LA 지역에서 창조과학선교회의



토리파인 해안에서 풀러 신학생 가족들

지속적인 사역뿐 아니라 참석하셨던 여러 리더 목사님들의 도움의 열매였습니다. 장소를 제공해주신 파사데나 장로교회와 LA 사랑의 교회(담임목사 김기섭), 사랑의 빛 선교교회(최혁), 충현선교교회(민중기)의 후원과 각 교단의 대표되는 목사님들께서 강력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창조과학 집중 세미나에 참석한 신학생들은 2월 4, 11일에는 샌디에고의 창조과학박물관과 토리파인 해안을 답사하며 실내에서 배운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기 ITCM 열기 속에 진행

지난 해 12월 24일부터 2기 ITCM(창조사역 집중훈련, 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Truth)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올 2월 18일에 그 장정을 마감하게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성경의 확실뿐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어떻게 드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온누리 대청 탐사여행도 참석하고 2월 초에는 인턴들만을 위한 야외 실습을 떠나기도 합니다. ITCM은 창조과학선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독서, 세미나, 야외실습, 발표 등으로 진행됩니다. 매 겨울과 여름에 두 달씩 진행됩니다. 지난 여름에는 5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귀한 결실을





온누리 대학청년부 탐사여행

얻었으며, 올 겨울은 7명이 참가했습니다. 앞으로 EM 2세들을 위한 ITCM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ITCM이 더욱 활발하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탐사여행

NCD 청소년 탐사여행

NCD(Natural Church Development, 대표 김한수 목사)에서 지난 여름 목사님들이 이어 지난 1월 11-14일 한국에서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40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방학기간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온누리 대학청년부 탐사여행

한국에서 서빙고 양재 온누리교회의 대학청년부(인솔 윤석원 목사)에서 지난 1월 16-12일 탐사여행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꿈과 함께 하는 체험학교 탐사여행

한국 순 선교회(대표 곽현숙 전도사)의 꿈과 함께 하는 체험학교의 탐사여행이 1월 19일부터 3일간 진행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학교인 인천 영화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초중고 학생 23명과 교사, 학부모 등 3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성경의 기반 위에 올바른 꿈을 세우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체협학교 탐사여행중 영화초등학교 학생들

2세 세미나

김선옥 박사가 인도하는 영어 세미나가 NJ 체리힐 제일감리교회(1월 13-14일)와 AFC Fellowship (1월 20일, Johns Hopkins University, MD)에서 열렸습니다. 계속되는 문 의와 관심 속에 2 세들을 위한 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 한 세미나와 탐사여행이 계획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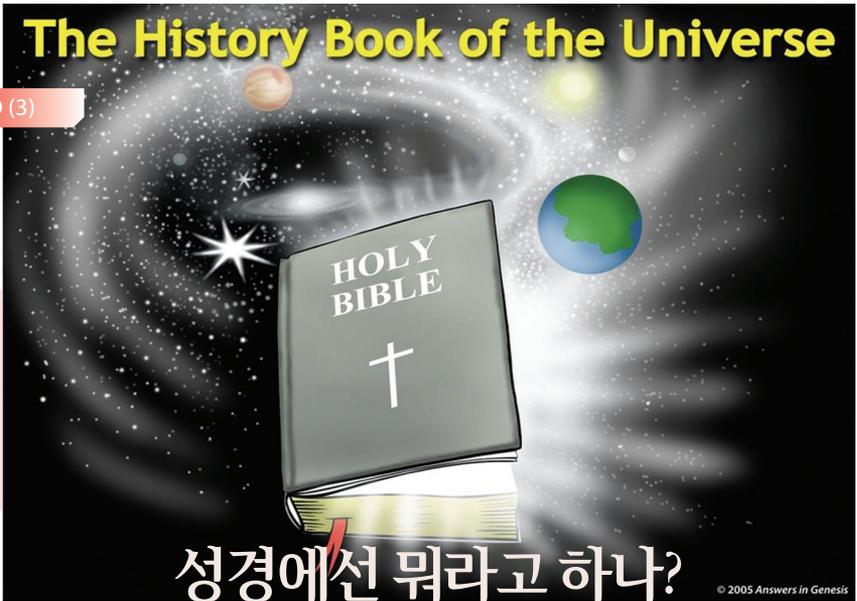
이재만 선교사는 주님의 영광교회(1월 18일)와 LA 온누리교회(2월 3, 4일) 청년부 수 련회를 인도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주로 성경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을 다루었 고, LA 온누리교회는 성경적 세계관에 대하여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련회 참석 자들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전12:1)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 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학교 창조과학 강의

2월 2일부터 미주장신대와 미주성결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창조과학을 토대로 한 과 목이 개설 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베데스다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미주장신대학 교, 국제개혁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에 이어 미주성결대학교에서도 창조과 학을 가르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확신하는 일군들이 많이 배출 되기 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5월 17일까지 진행 됩니다.

The History Book of the Universe

UFO (3)



앞선 칼럼에서 이미 UFO를 본 증인도 없고, 과학적 증거에서 나온 것도 아님을 다루었다. 이 증인과 증거가 없거나 나왔다면 이는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믿음임에 틀림없다. 분명한 것은 UFO는 보았기 때문에 등장한 것도 아니고 과학적 실험에서 등장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UFO가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등장한 것이다. 특별히 자연 발생해서 인간까지 진화했다면 지구뿐 아니라 수 많은 다른 별들 어딘가에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는 진화론적 사고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주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은 UFO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별들을 통해 창조주와 그의 능력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starry host: 총총한 별 떼)을 이끌어 내시며...”(사 40:26).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시 19:1).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시 8:3).

그러나 별들을 만드신 더 구체적인 목적은 이들이 창조될 때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 창조 넷째 날 별들을 창조하시며 “징조(signs)와 계절(seasons)과 날(days)과 해(years)를 이루라”(창 1:14)고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세기 1장 1절 태초(beginning)라는 말씀과 함께 시간을 창조하셨으며, 넷째 날 그 별들을 통해 시간이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본 장치로 창조하신 것이다(물론 ‘하루’라는 단위는 지구를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등장한다. 즉 지구의 자전을 하루로 정하신 것이다). 실제로 인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목적에 벗어 나지 못하고 시간의 시계로서 해, 달, 별을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창세기 1장에서 지구는 다른 별들 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는 점이다. 지구는 첫째 날, 별들은 넷째 날 창조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구를 창조하시고 다듬는 것은 닷새나 할애하셨지만, 별들은 단 하루만 사용하셨다. 성경은 지구가 별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한 장소라고 말한다. “사람이 거주하도록 그것(땅)을 지으셨으니”(사 45:18).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거할 곳이기 때문이다. 우주 공간이 크고 별들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다고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만약 크기나 수효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배제한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자연주의’ 틀 안에 갇혀있는 것이다.

우주기원에 대한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곤 한다. “하나님께서 평생에 보지도 못할 별들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드셨을까요?” 또는 “그 많고 많은 별들 중에 생명체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낭비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런 자세 역시도 ‘보이는 것이 모두’라는 자연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이는 것이 모두라고 생각하면, 내 자신은 이 엄청난 우주 속에 먼지 티끌만도 못한 존재로 떨어지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 천문학적 진화론을 심어주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칼 세이건(Carl Sagan)은 외계인 존재의 필연성을 내포하며 “인류는 아침 하늘에 떠 다니는 먼지 티끌이다.” “만약 다른 생명체가 없다면 우주는 공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서슴없이 말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지구에만 창조하셨다고 그 엄청난 우주 공간이 낭비된 것일까? 여기에 대하여 크리스천의 생각은 어떤가? 어마어마한 우주공간에 무수한 별들을 보며 단 하루 만에 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그려본다. 아울러 그분이 높아지면 자연히 그분의 형상인 우리도 높아진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인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보이셨어야 했으며, 우리는 수 많은 별들을 보며 그것들과 바꿀 수 없는 자신의 귀중함을 생각한다. 이것이 성경과 만상을 보며 그분의 의도와 우리 자신을 보는 정확한 태도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우주의 유일한 존재이며, 지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므로 우주를 초월하신 창조주께서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작고 작은 지구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다.

창세기 1장을 꼭 붙잡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창세기 1장을 무시하는 빅뱅과 같은 수백 역년의 폭발에 의해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진화이론을 믿으면, 지구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꾸게 되며, 그 목적도 알 수 없게 된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우주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이론을 통해 성경을 보는 것은 더욱욱 아니다. 성경을 통해 우주를 보는 것이

다. 그러면 쉽게 알 수 있다. 진화의 산물인 UFO는 그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고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과연 창조자의 마음과 의도를 알기 위해서 창조자 외에 물어볼 수 있는 방도가 어디 있겠는가?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뱀



중간 교배가 가능한 이유: 한 종류이기 때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로서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동물은 뱀이다(창 3:1). 이 뱀은 선악과 사건 이후 다른 동물들에 비해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 다니게 되었다(창 3: 14). 이 말은 뱀만 저주 받은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모두 다 저주 아래 들어 갔다는 말이다. 또 성경에는 이 후에 인류가 노아홍수의 심판 사건을 겪었으며 곧 이어 바벨탑 사건을 겪

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노아홍수의 격변은 인류의 수명을 900대에서 450대로 끌어 내렸다. 그런데 수명이 또 갑자기 250대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바벨탑 사건이 원인이 된 빙하시대가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노아홍수와 빙하시대는 사람의 수명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모든 생물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음에 틀림 없다.

지구 환경은 노아홍수와 빙하시대를 겪으며 급격하게 바뀌었다. 그 결과 모든 생명체들은 급격하게 악화 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야 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동식물들은 서서히 멸종하게 되었는데 공룡이나 매머드 같은 동물이 그런 멸종 동물의 몇 가지 예들이다. 또 멸종은 되지 않았어도 급격하게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물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바뀌게 되었는데 심하게 바뀌게 되면 사자와 호랑이 같이 같은 조상에서 나왔어도 서로 교배를 하지 않게 된다.

한 조상으로부터 새로운 종이 생겨난 예를 최근 창조과학자들은 뱀 종류(kind)를 연구함으로써 또 확인 하였다(2008 Proceedings of the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eationism, pp. 117-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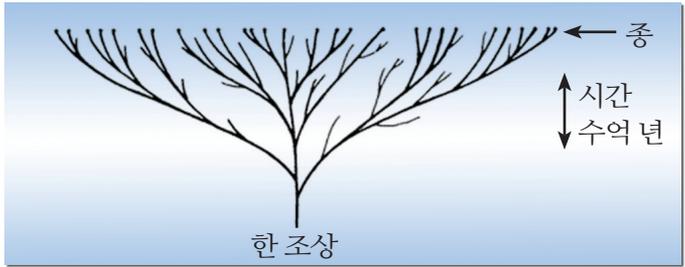
이 연구 목적 중 하나는 진화론 과학자들의 분류에 따르자면 3 가지 다른 속(genus)에 속하는 11 종(species)의 뱀들이 자연상태나 낚새를 못 맡게 한 상태에서

서로 교배가 되어 잡종들(hybrids)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실험 결과는 각 종들이 서로 다른 종과 교배 할 뿐 아니라 다른 속에 속한 종들과도 교배하여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보여 주었다.

종류(kind, 히브리어로는 baramin)란 단어는 성경에서만 사용하는 생물 분류 체계로 과학 책에만 나오는 생물의 분류 범위인 종(species)보다 훨씬 넓은 범위인 속(genus)이나 과(family) 정도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각 종류 안에는 수 가지 혹은 수십 가지 이상의 종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또 각 종류대로 창조 된 동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정해졌으므로 같은 종류 안에서만 서로 교배가 가능하여 후손을 낳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종류의 동물과는 교배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실험 결과는 3 속에 속한 11 종의 뱀들이 같은 종류였다는 것을 말 해 주고 있다. 달리 말하면 한 종류의 뱀 조상에서 3 속 11종의 뱀들이 생겨 난 것이다. 이 때 한 종류의 조상에서 11 종으로 종분화(speciation)하는 과정은 유전정보가 증가하는 과정이 아니므로 소진화

(micro-evolution)라고 부르면 안 되고 변이(variation)라고 해야 맞는 말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Ern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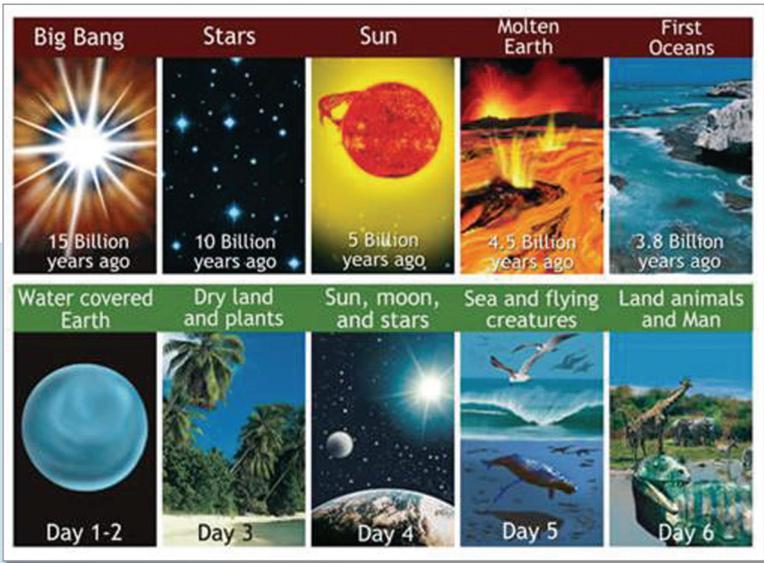
Mayr의 종의 정의에 따르면, 두 동물이 한 종이라고 확인이 되려면, 자연 환경에서 서로 교배가 되어야 하고,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종과는 교배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연구 된 서로 다른 3속 11 종의 뱀들이 서로 교배하여 생식 가능한 잡종들(hybrids)을 낳았다는 사실은 기존의 진화론적인 종 분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 진화론은 어떤 과(family) 혹은 그 이상에 속한 한 종이 다른 과 혹은 그 이상에 속한 다른 한 종과 친척 관계에 있다는 점을 실험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 동물에서 시작하여 다른 과의 동물로 만들 수 없었다. 진화론적인 분류 체계에서 유사한 여러 종(species)들은 속(genus)이라는 분류 그룹에 들어가고, 여러 속은 다시 과(family)라는 분류 그룹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종 - 속 - 과 - 목 - 강 - 문 - 계의 진화론적인 분류 체계가 사실이라면 어떤 한 종은 진화 나무에 있는 다른 모든 종들과 유전적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야 한다(진화나무 그림 참고). 따라서 진화론은 한 생물에서 시작해서 다른 과 혹은 다른 목에 속하는 생물을 만들어 내거나 증거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그런 실험도 없었고 증거도 없다. 생물들은 종류대로 창조 되었다는 성경의 주장이 더욱 실제적이고 논리적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처음 상태에서 벗어나 타락된 세상에서 분열되어 살아가고 있는 뱀들도 생물들이 종류대로 창조 되었다는 성경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세계관 전쟁 16 / 빅뱅은 성경적인가? (1)

빅뱅이론의 과학적 문제점

천문학은 지난 수년간 허블 우주 망원경, 쌍둥이 화성탐사선 스피릿(Spirit)호와 오퍼튜니티(Opportunity)호, 그리고 갈릴레오호, 카시니호, 호이겐호와 같은 우주 탐사선들로부터 최근의 발견들에 대한 풍성한 뉴스거리들을 제공해 왔다. 이 모든 우주 프로그램들은 이 우주가 수십억 년 전에 빅뱅으로 시작되었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 내용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이야기들을 넘겨 버린다. 그러나 빅뱅은 정말 과학적인 이론일까? 과학이 우주의 나이를 입증 하였나? 본장에서 빅뱅에 대하여 탐구 검토하고 왜 많은 과학자들이 그 이론을 포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빅뱅이론이 성경이나 과학에 왜 부합하지 않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빅뱅(대폭발)은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이다. 그 이론은 수십억 년 전에 우주가 무한대로 뜨겁고 고밀한 소위 특이점(Singularity)이라고 부르는 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제안한다. 이 특이 점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의 기원이 되는 물질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 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그 특이점은 한때 급격히 확장되었고 계속 에너지와 우주 공간이 펼쳐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확장됨에 따라 에너지는 오랜 기간 동안 식어졌다고 말한다. 한편 그 에너지 중에 어떤 것은 수소와 헬륨 가스와 같은 물질로 변하였고, 이 가스들이 서로 충돌하여 별들과 은하들이 형성 되었다고 하며, 어떤 별들은 그 중심에 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났고 그 후 폭발하여 그 원소들이 우주공간으로 확산되었다고 한다. 그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 무거운 원소

들이 서로 결합하여 결국은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기원에 대한 이 이야기는 전적인 공상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사람 들이 빅뱅 모델을 믿는다고 말한다. 스스로 크리스천이라 공언하는 많은 이들이 빅뱅이 무신론의 버팀목임을 깨닫지 못한 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때 크게 좌절이 된다. 그들은 기원에 대한 성경의 평범한 가르침들을 진화론의 믿음으로 어지럽게 절충하며 재해석해 왔다.

세상적인 타협 우리가 빅뱅이론을 성경에 덧붙일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한 마디로 빅뱅은 기원에 대한 세상적인 이야기이다. 빅뱅의 첫번째 제안은 우주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창조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바로 성경의 창조를 대체하려는 의도이다. 따라서 성경과 조화를 이루려 하는 시도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여기서 기원에 대한 성경 말씀과 빅뱅의 차이를 좀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하자.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를 6일 동안 창조하였다고 가르친다 (창세기1, 출애굽기 20:11). 그 창조의 날들이 저녁과 아침으로 구분되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등의 순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창세기의 문맥으로부터 24시간의 하루인 상식적인 날들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와 반대로 빅뱅은 우주가 수십억 년 이상 진화해 왔다고 가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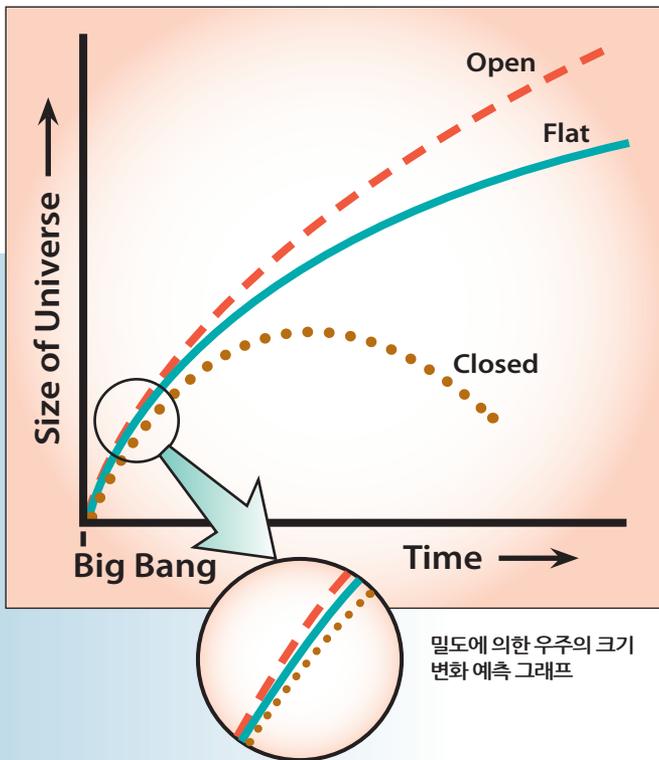
성경은 별들과 태양이 있기 전에, 그리고 식물들을 지으시기 전에 지구를 먼저 창조했다고 가르친다. 그렇지만 빅뱅의 세계관은 성경과 정확히 반대로 가르친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구가 낙원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지만 진화 모델은 지구가 낡은 덩어리 정도로 만들어 졌다고 가르친다.

많은 사람들은 빅뱅이론이 과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가장 인기 있는 빅뱅 버전은 우주가 영원히 팽창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유용한 에너지는 고갈될 것이라 가르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천문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열역학적 죽음(Heat Death)에 이르러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낙원은 회복될 것이다. 빅뱅은 이렇게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한다.

빅뱅이론의 과학적 문제점 빅뱅이론에는 많은 과학적 문제점들이 있다. 빅뱅이론 지지자들은 실제 과학적 관측자료들이 서로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맹신하도록 강요한다. 여기서 빅뱅이론과 실제 우주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것들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행방불명된 단극자 대개 냉장고에 붙일 수 있거나 나침판 같은 것을 자석으로 알고 있다. 보통 자석은 남극(S)과 북극(N) 두 개의 극을 가지며 같은 극은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 서로 당긴다. 하나의 단극자(Monopole)는 가상적인 질량 입자인데 이는 마치 하나의 자석과 같지만 한 개의 극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극자는 하나의 양극 또는 음극을 갖는다.

입자 물리학자들은 많은 자성을 띤 단극자들이 빅뱅시에 고온의 상태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단극자들은 안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날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당한 탐구에도 불구하고 단극자들이 발견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들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단극자를 찾지 못하는 사실은 우주가 결코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이는



밀도에 의한 우주의 크기 변화 예측 그래프

빅뱅같은 대폭발이 결코 없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반대로 우주는 무한히 뜨거운 고열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의 창조 모델에 부합하는 것이다.

평탄성 문제

(Flatness Problem)

빅뱅 모델의 또 다른 도전은 평탄성 문제이다. 관찰되는 우주의 팽창 속도는 중력의 힘과 매우 정교하게 균형을 이룬다. 이 균형의 상태를 소위 평탄성(Flatness: 역자주-천체 이론물리학의 용어로 공간의 곡률

값이 영이 되는 공간을 정의함)이라 한다. 만일 우주가 빅뱅의 우연의 부산물이라면 어떻게 그와 같은 극적인 일치가 생길 수 있을까? 상상하기도 어렵다. 빅뱅 천문학은 우주에 있는 물질의 밀도가 높아져 스스로 붕괴(닫힌우주)하거나, 반대로 물질의 밀도가 낮아져 급속하게 팽창(열린우주)해버리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문제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 심각해진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완전한 평탄성으로부터 편차가 증가하므로, 오늘날 보다는 과거의 우주가 더욱 정확하게 조율(균형) 되었어야 한다. 그러므로 빅뱅의 대폭발 순간에 우주는 실제로 극히 정밀한 평형상태이었어야 한다. 물리법칙들이 무한한 범위의 값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극히 평탄한 조건을 가졌었다는 것이 바로 빅뱅의 가정이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까지 믿는 것이다. 물론 주님께서 생명체를 위해 우주를 미세 조율 하였을 것이므로 창조모델에서 “균형”은 당연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문제 (Inflation Problem) 많은 천문학자들은 평탄성(Flatness)과 단극자(Monopole) 문제들을 (그외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는 지평선의 문제와 같은 다른 문제들 뿐만 아니라) 풀려는 시도로 소위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이디어에 매달려왔다. 인플레이션은 우주의 팽창이 과거 한 때 가속된 기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인플레이션을 지지하는 증거는 없다. 인플레이션은 빅뱅 자체와 같이 실체가 없는 추상에 불과하다. 더욱이 인플레이션 아이디어는 팽창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완만히 멈추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자체의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빅뱅의 문제점은 인플레이션이 사실이었는지조차 풀지 못하고

있다. 이것들은 검증되지 않는 문제들이다.

반물질은 어디에 있나? 바리온 수 문제(Baryon Number: 역자주-한 미립자계에서 바리온의 수와 반바리온(antibaryon)의 수의 차이와 동일한 양자수로 모든 반응을 통하여 동일한 수입)를 고려해 보자. 빅뱅이론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물질(수소와 헬륨 가스)이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졌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험 물리학은 에너지로부터 물질이 만들어질 때 그의 반작용으로 반물질(antimatter)이 또한 생겨난다고 설명한다. 반물질은 입자들의 전하가 반대인 것을 제외하고 그 물질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여기서 양자(proton)는 양전하를 띠며 부양자(antiproton)는 음전하를 갖는다.)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 어떠한 반응이라도 물질과 동일한 양의 반물질이 생겨나는데 이에 대한 예외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몰라도 빅뱅이 사실이라면 물질의 양과 동일한 양의 반물질이 생겼어야 하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우주는 거의 완전히 물질로 되어 있으며 단지 미량의 반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빅뱅 이론에 치명적인 이 문제거리는 실제로 성경의 창조와는 일치하는 설계의 특징이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물질만 있도록 우주를 창조 하였고, 그것은 그가 보시기에 좋았다. 물질과 반물질이 함께 생겨난다면 그것들은 격렬하게 서로를 파괴할 것이다. 빅뱅이 말하는 것처럼 만일 우주와 물질과 반물질이 동일한 양으로 존재한다면 생명의 존재는 불가능할 것이다.

Dr. Jason Lisle/ Answers in Genesis의 강사

출처: War of the worldviews, New Leaf Press (January 1, 2006)



남가주 교역자 탐사여행

11/14 - 11/16, 2011

This was a great blessing for me, just what I needed. As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I felt a heavy burden when I heard why we continue to teach falsely…… This is a must trip for our 2nd generation. -박세헌 목사님 & 박미리 사모님/ 예수로 교회

이번 창조과학 세미나는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얼마 전 읽었던 책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에 유럽교회의 몰락과 큰 교회들이 다른 종교의 사원으로, 도서관등으로 팔려나간 것을 보고 예배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했었는데 그 Basic 에 이번 여행에서 얻은 창조과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젠만 선교사님께 감사 드리며 창조과학 선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역사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류재욱 목사님/ 남가주 조이플 교회

우리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합리적인 이성엔 진화가 아니라 창조임을 확인하는 귀한 여행이었습니다. 진화 Model 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인가?! 이젠만 선교사님과 함께한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서 성경의 창조가 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과학성으로 인해서 고민인 모든 분께 이 여행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 박용일 목사님/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과학자들, 심지어 신학자들까지 성경에 반하는 말들을 하는 시대에 살면서 성경에 대한 저의 절대적인 믿음이 사실로 증명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후련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뿐 아니라 사실의 서술이 된다는 것이 기쁩니다. 언뜻 생각할 때, 과학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증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여겨지는데,.. 이 모든 연구와 또 그것을 전달해 주신 모든 분들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창조 과학자들과 같이 자신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많은 분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Message를 듣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김성교, 현선/ 총현 선교교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이 좋았더라. 처음으로 되돌아 가는 영혼들을…… 창조과학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다짐합니다. -최태규/ 양문 장로교회

성경말씀의 정확하고 위대함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노아방주의 성경말씀을 아이들에게 더욱 생생히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안화영

만물에 밝히 보이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사역과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 안병권/ 가나교회

창세기의 이야기를 내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눈으로 보며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 박 레베카

노아의 홍수 전과 홍수 후를 통한 지질학적 변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어 좀 더 확신 있게 창세기를 증거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 곽소건 / 새순 커뮤니티교회

요즘 저의 기도제목이 '믿음을 더해 주소서' 였는데 이번 여행에서 성경에 대한 이해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기도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새로 생긴 기도제목은 우리 2세 들을 위하여 창조과학선교회가 크게 쓰임 받아 우리 Korean-American을 통하여 미국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김혜숙/ San Bernardino Bethel Presbyterian Church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온 땅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시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19:1-4.

귀한 탐사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오늘도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주 에스더/ 충현선교교회

이번 여행을 통해서 우주와 지구와 성경을 새롭게 보며 한가지로 관통되는 눈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화미 사모님/ 성화장로교회

이번 창조과학 탐사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 주셨다는 생각을 하며 나의 전도 일정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 전도에 힘쓰며 이 선교사님의 성경을 사랑하는 열정을 마음에 심고 돌아가서 일점일획도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 황영희 사모님/ 디베라 장로교회

탐사여행을 시간시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믿고 계신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인 삼아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행 중 연예인들의 여행 DVD를 통해 그들이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여행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 김경례 전도사님/ 충현선교교회

2012년 ACT Schedule

- 
- 3/1 월드미션 신학대학교 채플(이재만), CA
 - 3/2-4 나침반교회(이재만), CA
 - 3/5-7 창조과학 탐사여행 (포모나 인랜드교회)(이재만)
 - 3/9 나성 서남교회(이재만), CA, 310-502-8541
 - 3/16-18 시애틀 형제교회 한어중고등부(이재만), WA
 - 3/17 샌디에고 탐사여행 (세리토스장로교회), (최우성)
 - 3/25 주님의영광교회(이재만), CA
 - 3/31-4/1 충청선교교회 E.M. 교사수련회(김선옥)

 - 4/1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4/1 LA 온누리교회 (노휘성), LA, CA
 - 4/1-5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모집)
 - 4/8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4/9-4/26 한국방문(이재만)
 - 4/9-6/18 중부창조과학학교 12기(엑소더스교회, 847-208-9544), Buffalo Grove, IL
 - 4/10 전주대학교(이재만, 한국)
 - 4/11-13 대만방문(이재만)
 - 4/14 전문인 선교사 훈련(이재만)
 - 4/15 애일교회(이재만, 한국)
 - 4/15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4/16-18 부산 영도 연합집회(이재만, 한국)
 - 4/20-22 신촌교회 (이재만, 한국)
 - 4/23 두란노칼리지 (이재만, 한국, 10:00am-5:30pm)
 - 4/24 전주대학교(이재만, 한국)
 - 4/26-5/7 일본방문(이재만)

 - 5/6 LA 온누리교회 (노휘성), LA, CA
 - 5/10-17 창조과학 탐사여행 (안산동산교회)
 - 5/22-25 창조과학 탐사여행 (국제가정교회 이사회)
 - 5/26 순회선교단 (이재만)
 - 5/26-28 메이페어 구세군교회 (773-794-6240 일반트랙: 이동용, Youth Track: 김선옥), Chicago, IL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381-1390 Fax 213-381-9242 www.HisArk.com / hisark@gmail.com